

## 親近한 國立公園



高炳佑  
전 건설부장관  
동원경제연구소 회장

정원(庭園)이 가정생활의 여유라면 공원(公園)은 시민의 정원이요, 국립공원(國立公園)은 국민의 정원이다. 나는 공휴일이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북한산(北漢山) 국립공원에 오른다. 산세(山勢)가 아름다운 것은 말할 나위 없지만 백운대(白雲台) 같은 기암괴석이 보현봉, 형제봉을 거느리고 갖가지 나무와 꽃들을 안고 있는 모습은 사람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조형물이요, 아름다움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등산객이 너무 많아 지나는 사람마다 명동거리라 부르기도 한다. 이 많은 인파가 이곳에 수용되지 않는다면 모두 어디로 갈까? 수도권의 모든 골프장 입장객을 합해도 북한산의 휴일 등산 인구에는 못 당할 것이다. 그 많은 입산객들을 북한산은 조용히 포근하게 감싸주며 마음의 때까지 씻어 준다.

서울시 당국에서도 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서 계단을 만들고 철책 손잡이를 세웠으며 대성문, 대남문, 대동문 그리고 동장대까지 복원하였고 잡상인을 추방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선도하였고 훼손이 심한 등산로는 일정기간 폐쇄하여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신경을 쓰고 있어 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이와같은 아름다운 국립공원이 전국에 20개나 있다. 설악산(雪嶽山), 오대산(五台山), 지리산(智異山), 한려수도(閑麗水道) 그 어느곳도 절경이 아닌 곳이 없다. 물론 많은 관광객이 이들 국립공원을 찾는다. 그러나 인원수로 보면 북한산에 비할 바 못되고 세계적 명성으로 보면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스위스의 융프라우, 캐나다의 밴프에 비길 수 없다.

한국의 좁은 국토, 그것의 3분의 2는 산이다. 그 중에서 국토의 5%, 우리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국토 이용율 4.4%보다도 넓은 면적이 국립공원이다. 이 넓고 아름다운 곳에 세계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수출산업 공장 몇 십개를 건설하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인 외화획득원이 될 것이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등산로의 정비와 부대시설, 특히 뛰어나게 아름다운 산세나 기암 절벽, 폭포 등을 보며 즐길 수 있는 전망대와 휴게소가 설치되어야 하며 접근하는 교통편이 국제항공에서 산에 이르는 도로까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 철도나 경비행기도 곳에 따라 필요하다. 산 가까이에 호텔과 골프장, 오락과 취미 시설도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공원(公園)은 사람들에게 친근(親近)해야 한다. 자연은 방치하는 것보다 가꾸고 관리하면 더 아름답고 친숙해 진다. 환경론자들이 자연에 손만 대면 자연훼손이요 환경파괴라고 몰아 붙이지만 절도 있는 관리는 오히려 자연을 보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97 무주 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를 준비하면서 전북지방의 아름다운 산들을 많이 보았다. 지리산, 덕유산, 내장산, 변산의 4개 국립공원이 연달아 있는 특이한 지세이며 그 사이에 마이산(馬耳山)과 같은 도립공원도 끼어 있다. 마이산은 산 모양이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모습이고 빼어나게 아름다운 산이다. 유니버시아드를 계기로 마이산과 4대국립공원에 세계인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이곳에 "세계의 길"을 조성하고 세계 각국의 전통가옥을 1km에 한 채씩 건립

하여그 나라의 전통의상, 지리 문화 특산품을 전시하게 하며 인접한 도로를 등산객을 위한 하이킹코스과 자전거 경주를 할 수 있는 바이킹코스로 조성해 세계적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지금 이 계획은 하이킹코스, 바이킹코스만 조성하고 각국의 전통가옥 건설과 시발점과 종착점에 렌탈하우스를 짓는 일은 시작을 못하고 떠나왔다. 언젠가 독지가가 나와 이 사업을 완성시키게 되면 마이산을 기점으로 하여 지리산을 비롯한 전북의 4대 국립공원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공기 좋고 여유있는 아름다운 산을 찾는 사람수가 많아 질 수 밖에 없다. 공원수를 더 많이 선정하고 또 아름답고 편리하고 매력적으로 치장하고 잘 관리해야 국민의 욕구에 응할 수 있고 외국의 관광객을 능동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특성에 따라 찾아갈 수 있는 투어가이드와 나아가 팩키지 투어를 조직하고 안내하는 기관이 많아져야 하겠다. ●